**취미와 예술 중간과제물**

202334-153942 임준희(컴퓨터 과학과) 광주/전남 지역대학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에 지금까지 없던 큰 영향을 미쳤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에 이어오던 일상은 그야말로 ‘중단’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 아주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가족과 지인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이전의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으로 인해 챙겨주지 못한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활동에 제약이 없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은 취미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나 자신의 사례를 덧붙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때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단되었던 일상이 회복된 현재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II. 본론

**코로나19 이전의 취미생활**

나의 코로나 이전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매일 등교하고 하교하고 집에 오면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OTT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드라마나 영화, 예능을 보는게 유일한 나의 취미생활이었다. 이외에는 당연히 생산성 없는 하루를 보냈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다른 걸 해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좋아했던 건 뭐였는지, 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는지 잊은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다고 느끼며 살아갈 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취미생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외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식이 3개월이나 미뤄질 정도로 하루하루 무섭게 증가하는 확진자 숫자와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위력이 무서웠지만,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가 찾아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의 생산성 없이 살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이 무엇이었는지, 하고 싶어했던 취미생활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았다.

1) 홈 트레이닝(운동) : 먼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헬스장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영상마다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오늘도 운동을 했다는 일종의 출석 체크를 남기고 있었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굳이 헬스장이 아니어도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는 나 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꾸준한 운동은 면역력과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행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점점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삶에 좋은 동기부여를 주기도 한다.

2) 캠핑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이나 여행이 제한되면서 캠핑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캠핑은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때로는 가족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 때로는 혼자서 자연을 느끼고 눈에 담을 수 있다. 텐트를 펴고 자리에 앉아 넓게 펼쳐져 있는 파란하늘과 녹색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불안했던 것들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은은히 내리쬐는 햇빛과 상쾌하고 맑은 숲의 냄새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를 다 잊게 해주었다. 평소 계속 집에만 있었을 땐 아침잠을 깨우는 눈부신 햇빛을 가리겠다고 죄다 블라인드를 내렸기에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를 접속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캠핑을 간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캠핑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집에 묶인 사람들을 캠핑을 통해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취미생활**

사실 지금의 취미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빼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오히려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팬데믹 이전처럼 다시 나태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가장 바뀐 건 나의 내면이 아닐까 싶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5킬로를 감량함으로써 인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느꼈고 지금은 헬스장도 다니고 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운동은 나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운동을 통해 건강 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취의 즐거움을 한 번 맛봤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끈기를 가졌다. 할 일이 많아져서 현재는 캠핑은 전보다 가는 횟수가 그 때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의 휴식이 필요할 때 시간을 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자연을 온 몸으로 느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누구나 삶에 지칠 순간은 당연히 오기 마련이다. 예전의 나는 그걸 제때 해소할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지금은 캠핑이라는 취미를 통해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로 여행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걸 귀찮아했다. 하지만 요즘은 캠핑 덕분에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에도 재미를 붙혔다. 정말 오랜만에 여행지에 몰려든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코로나 전 때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III. 결론

이렇듯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여러 취미활동은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양한 삶의 의미를 주고 있다. 그냥저냥 살아가던 나에게 성취감이라는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지쳤을 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활동에 제약이 있던 기간을 캠핑, 운동뿐만 아니라 공예 활동, 보드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취미는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무언가를 도전함으로써 자기 계발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